

2015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건축의 일

메시지 8

파쇄됨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림

성경: 고후 4:16, 엡 3:16-21, 2:21-22, 4:16

- I. 하나님의 건축의 일의 첫번째 단계는 옛 창조물을 파쇄하는 일, 곧 겉사람인 우리의 타고난 조성을 파쇄하는 것이다. 건축은 파쇄를 요구한다 — 마 16:18, 고후 4:16.
- A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건축하려면 우리는 파쇄되어야 한다. 이것이 건축을 위한 요구이다 — 엡 4:16.
 - 1. 건축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. 이것이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이다.
 - 2. 파쇄되는 것은 더 이상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건축된 사람은 파쇄된 사람이다.
 - 3.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고집하고 파쇄되는 것을 기꺼이 원하지 않는다면 건축될 길이 없다 — 비교 벰전 5:6, 2:5.
 - 4. 파쇄는 연결되고 짜여지는 결과를 가져오며 건축을 산출한다.
 - 5.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타고난 조성은 파쇄되어야 한다.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한다 — 고후 4:16.
 - B. 타고난 조성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된 사람은 약해지고 감소된 사람이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증가하신다 — 엡 3:17 상.
 - C.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성도들이 타고난 조성의 파쇄의 단계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다 — 엡 3:19.
 - D. 하나님과 사람의 두 본성은 그리스도 위에서 건축되며 파쇄 위에서 건축된다.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건축이 있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파쇄가 있다.
 - E. 그리스도는 있는 그대로의 그릇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. 그분은 파쇄된 그릇들을 필요로 하신다.
 - 1. 파쇄된 그릇들만이 생수의 통로들이 될 수 있다. 있는 그대로의 그릇들은 죽은 물을 위한 웅덩이만 될 수 있을 뿐이다 — 고후 4:7-12, 요 12:24-26.
 - 2. 우리가 외적으로 파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. 즉 우리의 존재를 파쇄하고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외적인 환경을 안배하실 필요가 있다 — 벰전 5:6.
 - 3.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의 진보는 그가 얼마나 파쇄되었는지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달려 있다.
 - 4.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의 존재가 파쇄된 것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신 것에 달려 있다 — 엡 3:17 상, 골 3:10-11.
- II. 하나님의 건축의 일에 협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— 엡 3:16-17 상.

- A. 바울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서 속사람에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가 그분 자신으로 점유되고 소유되고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기도했다 — 엡 3:17 상.
- B.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더 확산되실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정착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을 점유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소유하시며 그분 자신으로 그 부분들을 적시신다.
- C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 — 엡 3:17 상.
 - 1.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만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으로 취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.
 - 2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.
 - 3.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시는 인격이 되실 것이다 — 갈 2:20.
- D.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시다 — 엡 3:18.
 - 1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. 이것은 우주의 차원,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이다.
 - 2.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‘입방체’이시며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반드시 ‘입방체’, 곧 삼차원적이어야 한다.
- E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— 엡 3:19.
 - 1. 하나님의 충만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,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궁극적인 완결이다.
 - 2. 그리스도의 몸은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표현이다 — 엡 1:22-23.
 - 3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정도까지 그분으로 충만될 것이다 — 엡 3:20-21.
- F.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것의 결과이다 — 엡 3:17 상, 4:16.
 - 1. 교회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 그리스도,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다 — 골 3:10-11.
 - 2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.
 - 3. 마태복음 16 장 18 절의 교회의 건축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, 그들의 내적 존재 전체를 점유하시고 소유하시고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.
 - 4.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더 점유하실수록 우리는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더 건축될 수 있게 될 것이다 — 엡 2:21-22, 4:16.